



차영호 simplelifeuk@gmail.com | KCC정보통신 근무 당시인 지난 99년에 영국으로 건너간 이후 현재는 런던의 토탈즈스에서 선임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다. 집과 직장 이 모두 슬하고 어두운 런던에 위치하자라 가끔 햇볕을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신이 난다고. 이제는 비가 와도 우산 쓸 생각이 하지 않는 완전한 Londoner로, 5시 30분이 되면 어김없이 퇴근을 한다.

연재순서

1회 | 2006. 2 | 영국식 채용 방식에

적응하기

2회 | 2006. 3 | 영국에서 개발자로

일한다는 것

체험 IT 해외취업 - 영국편

영국에서 개발자로 일한다는 것



개발자라면 누구나 실력 있는 전문 개발자로 성장하기를 원할 것이다. 비록 지금 과중한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오늘도 낄밤을 새워야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원하는 일을 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행복한 개발자가 되겠다며 다짐하고 있지 않은가. 영국에서는 이런 개발자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영국식 채용 방식에 대해 알아본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영국에서 개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한다. 환상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해외 취업을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정확하고 냉정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

해 외 취업을 고민하는 많은 개발자들은 과연 외국에서 어떻게 개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개발자를 위한 대우와 환경이 정말 좋은지, 개발자 삶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지, 동양인이라서 차별받는 부분은 없는지, 아마 많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또 가정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꾸릴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원고를 통해 필자가 경험한 부분에 한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한다.

전문성을 살리는 개발 환경

영국에서 개발자로 일하면 자신의 전문성을 잘 살려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조직이 효과적인지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느슨함'이 필요하다고 한다(<http://xper.org/wiki/seminar/Slack>). 개인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실력을 키우고 전문성을 살려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창조적 게으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http://mediaflock.net/?p=68>). 2월호에 실린 임백준 씨의 연재소설 '창조적 개발자 알렉스'를 보면 불이 붙기 전에는 이베이도 보고 게임도 하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영국의 엄격한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9시에 시작하여 5시에 업무가 끝난다. 한국기업에서는 바쁘지 않을 때 8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저녁 8시에 퇴근했다. 한창 프로젝트 중일 때는 저녁 10시 퇴근, 늦으면 11시, 12시에 퇴근했고,

토요일 출근도 당연했다. 그러나 이제는 5시에 퇴근하여 집에 오면 6시 30분을 넘지 않는다. 저녁 먹고, 2시간 정도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책에서 읽었던 패턴을 응용하여 토이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고, 켄트백의 TDD를 다시 기억하면서 코딩을 해볼 수도 있다.

업무시간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주어진 일만 해야 하는 살벌한 분위기도 아니다. 필자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 집중해서 일하고 잠깐 쉬는 패턴으로 일하는데, 일하다 머리가 피곤해지면 인터넷을 보거나 화장실에 가서 세수하거나 잠깐 10분 정도 낮잠을 자기도 한다. 더 피곤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면 잠깐 근처의 공원을 한 바퀴 걷고 오기도 한다(요즘은 추워서 잘 하지 않지만). 또,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자주 갔다 오는데, 봄비는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후나 오전 시간에 다녀온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와 역할을 충분히 하기만 하면 한국기업에 비해 상당히 자유롭고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때문에 쫓기는 마음대신 여유 있게 차근차근 일을 할 수 있다.

영국에서 일하면 정말 이런 여유와 삶의 공백이 주는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ASP.NET 사용자 컨트롤을 작성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내 인트라넷에 있는 ASP.NET 관련 이북(e-book)들에서 관련되는 두 챕터를 꼼꼼히 읽을 수 있었다. 덕분에 사용자 컨트롤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더 깊

이있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작업하던 도중 Repeater 컨트롤 내에서 라디오버튼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ASP.NET에서 제공되는 기본 웹 컨트롤에 버그가 있어 Repeater 컨트롤 내에서는 라디오버튼 웹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역시 구글로 차분히 검색하여 해결할 수 있었고 덤으로 관련 팁들을 모아 아예 내 블로그에 정리하여 샘플코드와 함께 올려놓았다. 항상 마감일과 상사의 압박 속에서 살던 한국 직장에서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시간에 쫓길 때는 공부를 해도 단편적인 내용의 습득이 되기 쉽다. 특히 인터넷에서 얻는 팁과 같은 내용들이 그렇다. 그러나 여유 있게 이를 소화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모든 내용들의 전체가 얻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다. 마치 밥을 짓기 위해 뜬을 들이는 것처럼 지식에도 뜬이 필요한 것 같다(<http://xper.org/wiki/xp/ReceptiveToDiscovery>).

나이와 직급과 업무의 상관관계

한국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언제까지 개발만 할래?”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필자 나이로 앞으로 3년이면 길다는 말도 들었고, 실제로 개발에서 손을 떼고 매니저 역할만 한 적도 꽤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개발이 좋아서 전공도 아니었는데 IT 분야에 뛰어들었고, 지금도 코딩하며 개발하는 일이 너무 즐겁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영국에는 나이가 많다고 어쩔 수 없이 매니저가 된다는 개념은 전혀 없다. 물론 개발자 출신의 PM이나 CTO들도 있다. 토탈썬스(현재 근무 중인 회사, 이하 TTTJ)의 유일한 청일점 PM인 데일 역시 개발자 출신이다. 생김새는 해커 뻘치는데, 애석하게 지금은 PM이다. 그러나 PM이 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또 개발자로 경력을 쌓아도 계속해서 월급이 올라간다. 런던의 닷넷 개발자/컨설턴트 최저 평균 연봉은 46,000파운드이다(아직 필자의 월급은 그보다 만파운드나 낮다). 개발자로 실력을 잘 쌓으면 계속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먹고살기 위해 매니저를 할 필요는 없다.

나이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한국 나이로 필자는 올해 서른여섯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필자 나이를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들었더라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한국에서는 코딩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코딩이 어때서, 쉐트백 같은 대가들도 열심히 자바, 파이썬, 스톱토크로 코딩하고 있는데 말이다.

TTTJ의 개발자는 주니어 개발자, 중급 개발자, 선임 개발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월급은 다 다른데,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TTTJ 같은 인터넷회사의 개발팀에서 개발자로 일할 수도 있고, 컨설팅 업체에 들어가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다. 대체로 한국처럼 컨설턴트들이 더 연봉을 많이 받지만, 회사 나름이다.

이름 없는 컨설팅회사의 컨설턴트는 일반 회사의 개발자보다 월급이 낮을 수 있다. 또 주니어 개발자라고 해서 모두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다. 우리 팀의 주니어 개발자 중의 한명은 필자와 나이가 비슷하며 TTTJ에서 5년 동안 근무한 친구인데, 아직 주니어 개발자이다.

필자와 영문 이름이 같은 DBA 팀의 앤드류는 첫째 딸이 대학생이다. 우리 DBA 팀의 연령대가 조금 높은 편인데, 선임 DBA는 전에 고고학을 전공했다가 IT에 흥미를 느껴 이쪽으로 전직했다. 40대 후반 정도의 나이지만, 아직 DBA를 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본인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리팩토링하는 SP들과 작성하는 쿼리문들을 보면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하우들이 많이 들어 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평생 개발자로 살 수 있다.

영어는 어느 정도 해야 할까

영어 공부의 끝은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카투사로 근무하면서 미국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공부했고 대학 전공이 영어교육이어서 일반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국에서 살아가며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영어는 공부하는 만큼, 배우는 만큼 더 부족함을 느낀다. 취업에 필요한 영어라면 일반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하면 된다. 필자는 요즘 신규 채용 프로그래머를 위해 지원자들을 전화 인터뷰하고 있는데, 지원자 중 이탈리아 출신은 필자보다 영어를 더 못했다(이는 팀의 PM인 데일이 한 말이다). 이전에 인터뷰를 보면서 함께 페어 프로그래밍했던 친구는 영어발음이 너무 이상해 의사소통이 잘 안될 정도였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 영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영국 영어는 미국 영어와 발음이 달라서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니 영국식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이용하면 좋다. 필자는 BBC Learning English 웹 사이트를 애용한다(www.bbc.co.uk/worldservice/learning_english).

동양인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다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영국사회에서 불편한 점은 없을까? 어느 사회나 전반적으로 소수자(Minority)에 대한 차별은 있으며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영국은 여러 다양한 방정책들과 대안들이 성숙해 있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이다. 직장에서의 성별, 연령, 인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잘 법제화되어 있고, 이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보고서들이 매년 관련 기관에서 출판된다(www.dti.gov.uk/er/equality).

특히 IT 분야는 외국인들이 많아 오히려 영국인들이 소수자이다. 영국 학생들이 과학, 엔지니어링, 수학 등을 기피하는 현상은 영국

사회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며(www.timesonline.co.uk/article/0,,2-2033650,00.html) 전통적으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들은 외교관, 회계사, 변호사, 은행가, 언론인들이다(www.intercultural-training.co.uk/articles/asia/index.asp). 덕분에 수학과 과학, 엔지니어링 분야들은 외국인에게 모두 개방되어 있고 특히 IT 쪽에서는 인도인들이 오히려 메인스트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런던은 이미 영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비율이 더 많은 국제도시가 되었다. TTJ에서 근무하면서 인종차별은 전혀 느낄 수 없다. 개발자 11명 중에 필자를 포함해서 4명이 동양계이고, 1명이 인도인이다.

영국 개발자의 하루

보통 필자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한다. 옆의 닐(Neil)은 9시나 9시 10분 정도, 9시30분이 되면 오전 미팅(morning meeting)을 간단히 한다. 닐과는 바로 옆자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그때그때 물어보고 처리할 수 있어서 오전 미팅 때는 별로 할 말이 없다. 주로 오늘 무슨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간단히 말한다. 물론 30분 정도 길게 할 경우도 있다. 아마 프로젝트가 더 진행되고 오전 미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더 길어질 것이다. TTJ에서는 모든 미팅을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한다. 인원이 많아지면, 그 만큼 미팅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미팅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 한참 일하다 보면 12시가 된다. 잠깐 나가 길 건너 옆 건물에 있는 토스트 샌드위치를 사와서 자리에서 뉴스를 읽으면서 보거나, 아니면 도시락 테이크어웨이(take-away, 미국에서는 take-out)를 해서 공원에서 비둘기를 보면서 먹는다. 다들 점심은 각자 다양하게 먹다보니 점심시간이 외롭다. 금요일 점심은 가끔씩 함께 친한 사람들끼리 펍(pub)에 가서 맥주 한잔을 가볍게 하기도 한다. 지난 주에는 함께 일하던 란지니(Ranjini)라는 친구가 1년 출산휴가를 가는 날이어서 팀 전체가 모여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미리 20파운드를 준비해 갔다. 영국회사에서는 회식이라고 해서 절대 공짜로 먹는 음식이 아니다. 식사가 끝나면 돈을 걷는 '무시무시한' 풍습이 있다. 심지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조차, 1인당 15파운드까지만 회사가 부담한다.

오후에는 변함없이 맡은 모듈의 코딩 작업을 한다. 보통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기술디자인 문서(Technical Design)를 작성하고 시작하는데, 작업하다 보면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기술문서를 함께 업데이트시키며 작업한다. 유즈케이스와 유즈케이스에 관련된 비즈니스 룰과 요건 정의가 문서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조한다. 물론 문서화되지 못한 부분들은 직접 PM이나 UE(User Experience) 매니저를 만나서 해결한다. 4시 즈음 되면 다들 커피나 차를 사와서 마시는 등 분위기가 약간 느슨해진다. 보통 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커피를 사온다. 4시 50분이 되면 사무실 분위기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며 퇴근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5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필자는 보통 5시 30분 정도에 퇴근하며, 가끔씩 6시를 넘기기도 한다. 개발팀장 역시 5시 30분 정도면 퇴근하고, PM들은 자주 6시까지 일하고, 빌드매니저(Build Manager)는 조금 더 늦게 퇴근한다.

개발자도 사람인데, 결혼도 해야 하고 단란한 가정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영국에서 산다면 맞벌이를 하는 것이 좋다. 필자도 아내와 함께 둘째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맞벌이를 했다.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집에만 있으면 말할 사람도 없고 할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것이 영어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적으로 좋다. 그리고 영국에는 사교육비가 없고, 교육과 의료(NHS)가 무료이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면 그냥 병원을 나서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다(필자의 경우 두 명의 자녀를 모두 영국에서 낳았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간호사들의 인사를 받으며 그냥 퇴원하려고 하니 왜지 무척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영국에서 출산휴가는 여자의 경우 3개월에서 1년까지 가능하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많이 가며 6개월까지 급여의 일부가 나온다. TTJ의 경우 6개월까지 급여 전체를 지불한다. 남자의 경우 2주를 갈 수 있다.

한국의 개발자 VS. 영국의 개발자

어떻게 하면 영국회사에서 경쟁력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한국에서 경쟁력 있다면 영국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TTTJ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기 전에 반드시 기술디자인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다른 동료들이나 팀장과 함께 디자인 리뷰를 한다.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는 역시 팀장 및 다른 선임 개발자들과 함께 피어 코드 리뷰(Peer Code Review)를 한다. 작성한 모든 코드들은 코드 리뷰 전에 유닛테스팅되어야 한다. 적어도 TTTJ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리뷰, 코드 리뷰와 같은 리뷰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영국에서 개발자로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코드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스타일에 대한 고집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와 겸손함이 필요하다.

또한 객체지향식 사고에 강한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코드들은 객체지향적으로 작성된다. 이전 한국기업에서 일할 때는 일정에 쫓겨서인지, 충분히 객체지향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상태의 코드들을 필자 역시 많이 작성했고, 또 그런 코드들을 많이 보았다. 코드가 충분히 추상화되지 못하면 코드 중복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TTTJ의 경우 코드 비하인드 클래스들은 모두 해당 모듈의 공통 코드를 상속받는다. 대부분 페이지들은 웹 컨트롤만 .aspx 파일에 배치되어 있고, 다음처럼 코드 비하인드 파일들은 아무런 내용이 없다.

```
public class JobPreview : TTTJ.UI.Rectrs.Service.JobPreview
{
}
```

주요 비즈니스 로직들은 JobPreview 페이지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JobPreview 페이지는 다른 페이지를 상속받고, 또 이 페이지는 그 윗 단계의 다른 페이지들과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계속해서 그물처럼 클래스들과 인터페이스들이 맞물려 있다. 물론 상속이 너무 많아져 복잡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요점은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객체지향식 개발에 익숙하지 못해서 『Head First Design Pattern』을 여러 번 보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 NUnit을 이용하여 TDD로 개발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다.

TTTJ 웹 사이트에 사용되는 웹 컨트롤들은 거의 대부분 기존 System.Web.UI.WebControls들을 상속받아 확장한 사용자 컨트롤들이다. 예를 들어 버튼 같은 경우 ConfirmMessage라는 속성이 있어 다음과 같이 값을 주면 버튼을 누를 때 자바스크립트의 confirm 메소드가 실행되면서 확인 창이 뜨게 된다.

```
btnRemove.ConfirmMessage = Resources.GetString("RemoveConfirmMessage")
```

한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번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웹 컨트롤 버튼의 Attribute에 자바스크립트 메소드를 할당하던 생각이 났다. 주어진 시간에 할일만 끝내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개발시 만들어진 나의 코드가 적절한 수준에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백준 씨의 말처럼 “자기가 작성한 코드 중에서 ‘재사용’ 되는 코드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프로그래밍 ‘실력’ 이자 자신의 경쟁력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http://www.imaso.co.kr/?doc=bbs/gnuboard.php&bo_table=article&wr_id=4831).

생산성이 업무의 척도

영국에서 일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우선 유럽 여행을 자주 갈 수 있으며 유럽에서 개최되는 개발자 대상 컨퍼런스들도 쉽게 참석할 수 있다(virtual.vtt.fi/virtual/xp2006). 가장 좋은 점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개발을 사랑해서 할 수 있다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물론 프로그래밍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한해서이다.

영국에서는 개인의 생활이 회사의 공적인 생활만큼 존중받는다. 회의가 길어져서 5시를 넘으면 보통 사회자가 개인적인 약속들이 없는지 회의 참가자에게 물어본다. 선약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일어난다. TTTJ의 경우 1년에 28일의 휴가가 주어지며 다들 자유롭게 사용한다. 보통 여름에 2주나 3주 휴가를 많이 가며 금요일, 월요일에 하루씩 사용하여 4일 연휴를 만들어서 긴 주말을 보내기도 한다. 잘 쉬어야 더 생산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영국 직장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항목은 생산성인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보다 얼마나 생산적인지가 평가의 중요한 항목이 된다. 열심히 일하기(Work hard)보다 지혜롭게 일하기(Work smart)가 더 인정받으며 장시간 일하기(Work long hours)보다 집중해서 일하기(Work intensively)가 선호된다.

영국에서는 보통 한 회사에 5년 정도 근무한다. 근무한지 4, 5년이 지나면 이직을 생각하거나 진급하며 다른 직급을 갖게 된다. 필자 역시 TTTJ가 벌써 4번째 직장이다. 대부분 회사와 개인의 관계는 윈-윈(win-win)의 관계이다. 회사가 개인에게 무조건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고, 회사에 공헌이 없는 개인을 회사에서 무조건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력을 꾸준히 관리하며 성장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 회사의 경영진 역시 개인의 성장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도전

이렇게 보면 영국에서의 직장생활이 마치 천국처럼 느껴질지도 모

르겠다. 하지만 어느 곳이나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독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영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최근 비자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노동허가는 영국에서 받더라도, 실제 체류 비자는 출신 국가의 영국 대사관에서만 발급하도록 되었다. 외국인을 채용해 본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이 때문에 미리 겁먹고 노동허가서가 필요하다면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또 영국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구인시 노동허가가 필요 없는 사람들만 지원하도록 요건을 달기도 한다. 노동허가는 기간이 4년이고, 4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한번 발급된 노동허가는 회사를 옮길 시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미 노동허가서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다 하더라도 새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새로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필자는 '노비문서'라고 부르곤 했는데, 어쨌든 4년간은 좀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뎌야 한다. 이를 좀 악용하여 어떤 매니저들은 노동허가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직원들을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영주권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 영주권을 받으면 직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고 영국인들과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이 주어지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필자 같은 외국인 프로그래머들(Off Shore Programmer)은 보수나 직급에서의 어느 정도의 불리함을 가지고 경쟁하게 된다. 『실용주의 프로그래머』로 유명한 앤드류 헌트는 'How To Keep Your Job'이라는 프리젠테이션(www.pragmaticprogrammer.com/talks/HowToKeepYourJob/HTKYJ.html)에서 "Off shore programmers are cheaper, and offer good quality"라고 말했다. 솔직히 필자와 같은 외국인 프로그래머들은 영국인 프로그래머에 비해 인건비가 낮은 데도 더 열심히 일한다. TTJ에서도 제일 늦게 남은 사람들은 필자를 포함하여 주로 남아프리카, 호주, 아일랜드 출신의 외국인 엔지니어들이다. 실제 필자 역시 TTJ 전 직장에서도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다. 물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경험들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말이다.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별다른 차별을 느끼지 못하지만, 생활에서는 차별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영국인들은 미국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필자는 한국에 있을 때 농구를 무척 좋아했는데, 이곳에서는 농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필자가 가끔 농구 얘기를 하면 제임스라는 친구는 "oh, that silly American game"이라고 한다. 한국인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 때문에 자격지심을 느끼는 한국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영국인들보다 불리한 출발을 인정하고, 더 노력하여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력 있고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IT 만큼 실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분야도 없다. 학벌, 나이, 직급 등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된다. 점심시간에도 각자 알아서 샌드위치를 사서 자리에서 먹는다. 함께 있더라도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웃고 떠들며 즐기는 것은 힘들다. 특히 펍이라 레스토랑에 가면 사람들의 말은 더욱 빨라져서 더 이해하기가 힘들다. 필자는 주로 들으며 웃는 편이다. 외국인으로서 친구를 사귀는데도 좀 더 많은 노력과 겸손함이 필요하다. 영국인의 집은 그의 성이라는 말이 있다(English man's home is his castle). 언어와 문화의 차이와 장벽을 극복하고 우정을 쌓으려면 먼저 겸손하게 다가가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 필자도 무리 없이 지내는 영국인들은 있지만, 정말 마음을 열고 친구로서 사귀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이건 한국에서도 어려운 건지도 모르겠다).

알려진대로 영국은 물가가 무척 비싸다. 필자 역시 세금 내고 모기지(Mortgage) 상환하고, 각종 공과금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근처의 일식집에서 라면을 먹었는데, 6파운드, 약 12,000원이 나갔다. 지번 주 금요일은 아내와 함께 간단하게 타이음식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30파운드, 약 60,000원이 지출되었다. 이곳에 살면 본의 아니게 절약하면서 살게 된다. 집에서 점심 도시락도 싸오게 되고, 지하철 대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래도 직장이 있으면 집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비록 모아놓았던 돈은 없었지만, 필자 역시 은행에서 모기지를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었다. 필자가 집을 사는데 든 돈은 집 값의 10%였다.

성장 가능한 환경과 여건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필자는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감사하다. 이곳에서는 원하기만 한다면 무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있다. 밤 10시까지 일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헤이해지는 것이 문제이다. 실제로 주위에서 이런 축복과도 같은 여건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편하게만 지내는 개발자들도 본다. 아마 그들은 처음부터 이런 환경에 젖어 있어서 이런 여유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힘든 여건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개발에 매진하는 한국의 개발자들에게도 필자와 같은 좋은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원한다. **끝**